

진의 통일과 멸망

오랫동안 여러 나라가 경쟁하던 중국을 진나라가 통일했어요. 진은 넓은 나라를 하나로 다스릴 제도를 마련했지만, 통일 뒤 약 15년 만에 무너졌어요. 강한 나라를 만드는 일과 그 나라를 오래 유지하는 일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 단원의 질문

- Q01 여러 강국 가운데 진나라는 어떻게 힘을 키웠나요?
- Q02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 Q03 진의 왕은 왜 자신을 ‘황제’라고 불렀나요?
- Q04 군현제는 나라를 어떻게 나누어 다스리는 제도인가요?
- Q05 주나라의 봉건제와 진나라의 군현제는 무엇이 달랐나요?
- Q06 군현제는 왜 ‘중앙 집권’을 강화했나요?
- Q07 문자를 통일했다는 것은 말을 모두 똑같이 하게 했다는 뜻인가요?
- Q08 화폐를 통일하면 무엇이 편해졌나요?
- Q09 ‘도량형’은 무엇이며, 왜 통일했나요?
- Q10 도로를 만들고 수레바퀴 사이의 간격도 맞춘 까닭은 무엇인가요?
- Q11 중국을 통일했는데도 왜 만리장성을 쌓았나요?
- Q12 사진에서 보는 만리장성이 모두 진 시황제 때 만들어진 건가요?
- Q13 ‘분서갱유’는 왜 사상 통제의 사례인가요?
- Q14 병마용은 진짜 군인과 말을 묶은 것인가요?
- Q15 나라를 위한 공사가 왜 백성에게는 부담이 되었나요?
- Q16 진승·오광의 난은 왜 일어났나요?
- Q17 그렇게 강했던 진나라는 왜 통일 뒤 약 15년 만에 무너졌나요?
- Q18 진나라가 빨리 망했는데도 통일 정책을 중요하게 배우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 단원의 질문

Q01 여러 강국 가운데 진나라는 어떻게 힘을 키웠나요?

답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제도를 고치고, 농업과 군대를 강화했어요.

주나라 왕의 힘이 약해진 뒤 여러 나라가 다투던 시기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요. 그 뒤쪽 시기가 **전국 시대**예요. 이때 여러 강국이 땅과 백성을 차지하려고 경쟁했어요. 진나라도 그중 하나였어요. 진은 상앙이라는 정치가를 등용해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를 고쳤어요.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해요.

상앙의 개혁에는 **법가** 사상이 바탕이 되었어요. 법가는 분명한 법과 상벌로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 군주의 권력과 나라의 힘을 키우려 한 사상이예요. 진은 농업을 장려하고,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주었어요. 귀족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리던 특권도 줄이려 했어요.

농사가 잘되어 곡식이 늘면 병사에게 줄 식량을 확보하기 쉬워요. 전쟁에서 세운 공에 보상을 주면 사람들이 공을 세우려 할 수 있어요. 이런 제도는 사람과 물자를 모아 군대를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진이 강해진 까닭은 처벌이 무서웠기 때문만이 아니라, 농업·군대·관리 조직을 함께 정비했기 때문이에요.

Q02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답 기원전 221년 다른 여섯 강국을 정복해,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던 지역을 하나의 지배 아래 묶었다는 뜻이에요.

전국 시대의 끝 무렵에는 진을 포함한 일곱 강국이 경쟁했어요. 진은 다른 여섯 강국을 차례로 정복했고, 기원전 221년에 통일을 이루었어요. 이때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났어요.

그전에는 각 나라의 군주가 자기 나라를 다스렸어요. 통일 뒤에는 진의 지배자 한 사람이 넓은 지역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여러 지역과 사람들을 하나의 최고 권력 아래 묶어 다스리는 큰 나라를 **제국**이라고 해요. 진은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으로 설명돼요.

진이 중국 역사상 처음 생긴 나라는 아니예요. 그전에도 상나라와 주나라가 있었어요. 또 진이 통일한 지역의 경계가 오늘날 중국의 국경과 똑같았다는 뜻도 아니예요. 여러 강국으로 나뉘어 있던 당시의 중국을 하나의 통일 제국으로 바꾸었다는 뜻이에요.

Q03 진의 왕은 왜 자신을 ‘황제’라고 불렀나요?

답 여러 나라를 통일한 자신이 기존의 왕들보다 높은, 통일 제국의 최고 지배자임을 드러내려 했기 때문이에요.

전국 시대의 왕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 한 나라의 지배자였어요. 통일을 이룬 진의 왕은 자신이 그 왕들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황제**라는 새로운 칭호를 사용했어요. **칭호**는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어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는 스스로를 **시황제**, 곧 ‘첫 번째 황제’라고 불렀어요. 진나라의 시황제이므로 **진 시황제** 또는 **진시황**이라고도 해요. 시황제는 태어날 때부터의 개인 이름이 아니라 통일 뒤 사용한 칭호예요.

새 칭호는 단순히 이름을 멋지게 바꾸는 일이 아니었어요. 넓은 제국의 중요한 결정을 황제를 중심으로 내리겠다는 뜻도 담고 있었어요. 이를 실제 제도로 뒷받침한 것이 군현제와 여러 통일 정책이었어요.

Q04 군현제는 나라를 어떻게 나누어 다스리는 제도인가요?

답 나라 전체를 군과 현이라는 행정 구역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임명한 관리가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제도예요.

황제 한 사람이 모든 마을에 가서 세금을 걷거나 재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넓은 땅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의 일을 맡을 사람이 필요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위해 나눈 구역을 **행정 구역**이라고 해요.

진은 나라 전체에 **군현제**를 실시했어요. **군**은 비교적 큰 행정 구역이고, 그 아래에 더 작은 **현**을 두었어요. 여기서 ‘군’은 군대라는 뜻이 아니예요. 군과 현을 맡은 관리들은 세금을 걷고 법을 집행하는 등 지방의 일을 처리했어요.

중요한 점은 지방을 맡은 사람이 독립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황제가 이끄는 중앙 정부의 관리였다는 것이예요. 군현제의 바탕은 통일 이전부터 나타났고, 진은 통일 뒤 이를 나라 전체에 실시했어요.

Q05 주나라의 봉건제와 진나라의 군현제는 무엇이 달랐나요?

답 주나라의 제후는 지배권을 집안에서 이어받았지만, 진의 지방 관리는 중앙이 임명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나라는 왕의 친족이나 공을 세운 사람에게 지역을 맡겼어요. 그 지역을 다스린 지배자가 **제후**예요. 제후의 지위와 지배권은 대체로 자손에게 이어졌어요. 이렇게 부모의 지위나 권한을 자손이 물려받는 것을 **세습**이라고 해요. 이러한 통치 방식을 주나라의 **봉건제**라고 해요.

제후도 왕을 받들고 군사를 보내 도와야 했어요. 처음부터 왕과 아무 관계가 없는 지배자는 아니었어요. 다만 자기 지역의 땅과 군사를 바탕으로 힘을 키울 수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왕의 통제를 벗어나는 제후들이 나타났어요.

진의 군현제에서는 지방을 맡은 관리가 그 지역의 지배권을 자기 집안의 권리로 세습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었어요. 중앙은 관리에게 일을 맡기고, 잘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지방을 다스린다는 점은 같아도, 누가 그 자리를 맡기고 바꿀 수 있는지가 달랐어요.

비교할 점	주나라의 봉건제	진나라의 군현제
지방을 맡은 사람	왕에게 지역을 맡은 제후	중앙에서 임명한 관리
지위가 이어지는 방식	제후의 지위를 대체로 세습	중앙이 임명하고 교체
중앙과 지방의 관계	제후가 자기 지역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힘을 키울 수 있음	지방 관리가 중앙의 명령에 따라 일을 처리함

Q06 군현제는 왜 ‘중앙 집권’을 강화했나요?

답 중앙이 지방 관리를 임명하고 바꾸며, 그 관리들을 통해 지방의 세금과 행정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앙 집권은 나라의 중요한 결정 권한이 중앙 정부와 군주에게 모이는 것을 말해요. 수도가 지도 한가운데에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령 어느 지역의 관리가 중앙에서 정한 세금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 볼게요. 그 자리가 한 집안의 세습 권리라면 중앙에서 바꾸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반면 중앙이 임명한 관리라면 책임을 묻고 교체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기 쉬워요.

군현제의 관리들은 중앙의 명령을 지방에서 실행하고, 지방의 상황을 보고했어요. 황제가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한 것은 아니지만, 중앙의 관리 조직을 통해 지방까지 다스리는 힘을 넓힌 거예요. 물론 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관리가 언제나 명령을 완벽하게 따른 것은 아니예요.

Q07 문자를 통일했다는 것은 말을 모두 똑같이 하게 했다는 뜻인가요?

답 아니예요. 지역마다 달랐던 글자 모양과 표기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모든 사람의 말과 발음을 같게 만든 것은 아니예요.

통일 전 여러 나라에서 쓰던 글자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지역에 따라 모양이나 쓰는 방식이 달랐어요. 진은 진나라의 글자를 바탕으로 문자 사용의 기준을 정비했어요. 이때 정비한 대표적인 글자체를 **소전**이라고 해요.

명령을 적은 문서가 지방에 도착해도 관리가 글자를 다르게 이해하면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워요. 같은 기준으로 글자를 쓰면 법과 명령을 전달하고 세금이나 사람의 수를 기록하기 쉬워져요.

문자 통일은 의사소통을 돕는 일이면서 중앙의 명령이 여러 지역에 통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지역마다 다른 말투와 발음까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예요.

Q08 화폐를 통일하면 무엇이 편해졌나요?

답 지역마다 다른 돈을 확인하고 바꾸는 번거로움을 줄여, 여러 지역 사이에서 물건을 거래하기 쉬워졌어요.

화폐는 물건을 사고팔 때 그 값을 치르는 데 쓰는 돈이에요. 통일 전 여러 나라에서는 모양과 기준이 다른 화폐를 사용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팔러 가면 그곳에서 어떤 돈을 받고 그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아야 했어요.

진은 둥근 모양에 네모난 구멍이 뚫린 **반량전**을 기준으로 화폐를 통일했어요. 돈의 기준을 맞추면 물건값을 계산하고 거래하는 데 도움이 돼요. 국가도 넓은 지역의 경제를 공통 기준으로 관리하기 쉬워져요.

화폐가 같아졌다고 모든 물건의 가격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예요. 곡식이 부족한 곳과 풍부한 곳의 가격은 다를 수 있어요. 돈을 쓰는 기준을 통일하는 일과 물건값을 모두 같게 정하는 일은 달라요.

Q09 ‘도량형’은 무엇이며, 왜 통일했나요?

답 길이·부피·무게를 재는 기준이에요. 물건을 거래하고 세금과 물자를 계산할 때 같은 기준을 쓰려고 통일했어요.

도량형의 ‘도’는 길이, ‘량’은 부피, ‘형’은 무게와 관련돼요. 길이는 천이 얼마나 긴지, 부피는 그릇에 곡식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무게는 물건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나타내요.

곡식을 ‘한 그릇’씩 주기로 했는데, 한쪽은 큰 그릇을, 다른 쪽은 작은 그릇을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이름은 같아도 실제로 주고받는 곡식의 양이 달라져요. 세금을 걷는 관리마다 다른 크기의 그릇을 쓰면 백성이 내는 양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워요.

진은 길이·부피·무게를 재는 기준을 맞추었어요. 같은 양인지 확인하기 쉬워지면 거래의 혼란을 줄일 수 있고, 국가도 거둔 곡식과 군대에 보낼 물자를 일정한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도량형 통일은 상인뿐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에게도 중요했어요.



곡식의 양을 재는 사람들 — 상상도

왼쪽 사람은 곡식을 가져오고 있어요. 탁자 위의 청동 그릇 두 개는 같은 양을 재려고 크기를 맞춘 기준 그릇이에요. 한쪽에는 곡식이 담겨 있고, 다른 쪽은 비어 있어요. 가운데 사람은 곡식을 가득 담은 뒤, 윗면을 그릇 가장자리 높이에 맞춰 나무 막대로 고르고 있어요. 이렇게 윗면을 맞추면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은 ‘딱 한 그릇’을 썰 수 있어요. 크기가 같은 그릇에 이 방식으로 담으면 누가 채도 같은 양을 맞추기 쉬워요. 오른쪽 관리는 글을 적던 대나무 조각 묶음인 죽간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기준으로 재면 거래하거나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비교하기 쉬워져요. 특정 유물이나 실제 현장을 그대로 복원한 그림은 아니에요.

Q10 도로를 만들고 수레바퀴 사이의 간격도 맞춘 까닭은 무엇인가요?

답 사람과 물자가 여러 지역을 오가기 쉽게 하고, 중앙의 명령과 군대를 필요한 곳에 보내기 위해서예요.

글자와 돈의 기준이 같아져도 길이 불편하면 물건과 소식을 옮기기 어려워요. 진은 도로를 정비하고 수레의 두 바퀴 사이 간격을 맞추는 정책도 폈어요.

흙길에 수레가 여러 번 지나가면 바퀴가 지나간 자리가 홈처럼 남을 수 있어요. 수레마다 바퀴 사이 간격이 크게 다르면 바퀴가 같은 홈을 따라가기 어려워요. 수레가 다니는 기준을 맞추는 것은 지역 사이의 이동을 돕는 방법이었어요.

길은 상인이 물건을 나르는 데도 쓰이지만, 관리가 문서를 전달하고 군대가 이동하는 데도 쓰여요. 따라서 도로 정비는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정책이면서, 넓은 지역을 중앙과 연결하는 통치 정책이기도 했어요.

Q11 중국을 통일했는데도 왜 만리장성을 쌓았나요?

답 여러 강국을 정복한 뒤에도 북쪽의 흉노 같은 유목 세력과 충돌했기 때문이에요.

진의 통일은 주변의 모든 세력까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북쪽 초원에는 가축을 기르며 생활하던 유목 세력들이 있었어요. **유목**은 가축에게 먹일 풀과 물을 찾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방식이에요. **흉노**는 북방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유목 세력이에요.

진은 북쪽으로 군대를 보내 영역을 넓히고, 국경을 지키려 했어요. 기존에 있던 성벽 일부를 연결하고 보강해 긴 방어 시설을 마련했어요. 이것이 진 시황제 때의 **만리장성**이에요.

장성은 이동을 막거나 늦추고, 적의 접근을 살피며 군대를 배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다만 성벽 하나만 세우면 모든 충돌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성벽을 지킬 병사와 그들에게 보낼 식량도 계속 필요했어요.

Q12 사진에서 보는 만리장성이 모두 진 시황제 때 만들어진 건가요?

답 아니에요. 장성은 여러 시대에 걸쳐 쌓고 고쳤으며, 오늘날 유명한 벽돌·돌 성벽 구간은 주로 진보다 약 1,600년 뒤에 시작된 왕조인 명나라 때 모습이에요.

진 시황제 이전에도 여러 나라가 방어를 성벽을 쌓았어요. 진은 그중 일부를 연결하고 새로 쌓거나 보강했어요. 그러므로 시황제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오늘날의 장성 전체를 한 번에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맞지 않아요.

장성은 지역의 재료와 시대에 따라 쌓는 방법도 달랐어요. 진 시대에는 흙을 여러 층으로 다져 쌓는 방식도 쓰였어요. 오늘날 관광 사진에서 자주 보는 높은 벽돌 성벽과 촘촘한 성가퀴를 당시 모습으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어요. **성가퀴**는 성벽 위에서 몸을 가리며 방어하도록 덧쌓은 낮은 담이에요.

장성을 만들려면 흙이나 돌을 나르고, 벽을 쌓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식량도 공급해야 했어요. 긴 방어선을 마련하는 국가의 사업 뒤에는 수많은 사람의 노동이 있었어요.



흙을 다져 성벽을 쌓는 사람들 — 상상도

사람들이 바구니로 흙을 나르고, 나무판으로 만든 틀 안에 넣은 흙을 긴 나무 도구로 다지고 있어요. 흙을 이렇게 층층이 다져 쌓으면 뒤쪽 언덕을 따라 보이는 것과 같은 단단한 성벽이 돼요. 왼쪽에는 잠시 쉬는 사람도 보여요. 당시 쓰인 축성 방식과 노동을 설명하는 장면으로, 특정 장성 구간의 실제 공사 현장을 복원한 그림은 아니에요.

Q13 ‘분서갱유’는 왜 사상 통제의 사례인가요?

답 황제의 통치를 비판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책과 생각을 억누르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한 사건으로 설명되기 때문이에요.

분서는 책을 불태운다는 뜻이고, **갱유**는 학자들을 땅에 묻어 죽였다는 일을 가리켜요. 교과서에서는 두 사건을 묶어 **분서갱유**라고 하며 진의 강압적인 통치를 설명해요.

진 다음 왕조인 한나라 때 쓰인 역사책 『사기』에는 진이 옛 제도와 역사를 들어 현재 정치를 비판하는 것을 막으려고 일부 책을 불태우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기』는 역사가 사마천이 쓴 책이에요. 농사나 의약처럼 실제 생활에 쓰이는 책 등은 제외되었으므로, 모든 종류의 책을 없앤 것은 아니에요.

갱유도 『사기』에 전해지지만, 희생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와 사건의 구체적인 모습에는 역사학자들의 논의가 있어요. 『사기』에 따르면 책을 태운 일은 기원전 213년, 학자들을 탄압한 일은 그 이듬해의 일이에요.

사상 통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말하고 전할 수 있는지를 권력이 제한하는 것이에요. 진은 통일 뒤에도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기보다 황제 중심 질서를 강하게 지키려 했어요. 분서갱유가 문자 통일과 다른 점도 여기에 있어요. 문자 통일이 글자를 쓰는 기준을 맞추는 정책이라면, 분서갱유는 비판적인 생각과 그 표현을 억누른 일이에요.

Q14 병마용은 진짜 군인과 말을 묶은 것인가요?

답 아니에요. 흙으로 빚어 구운 병사와 말의 모형을 무덤 주변에 배치한 것이에요.

병마용에서 ‘병’은 병사, ‘마’는 말, ‘용’은 무덤에 넣는 사람이나 동물 모형을 가리켜요. 병마용은 진 시황제의 무덤인 **시황릉** 주변에서 발견되었어요. **릉**은 왕이나 황제의 무덤을 부르는 말이에요. 병마용을 넣은 구덩이를 **병마용갱**이라고 해요.

병사 모형은 실제 사람과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졌고, 군대처럼 줄을 지어 배치되었어요. 시황제가 죽은 뒤에도 자신을 지키는 군대와 권력을 누리려 했던 생각을 보여 줘요. 살아 있는 군대를 그대로 흙으로 바꾸거나 묻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모형들은 당시의 옷차림과 무기, 군대의 모습을 살피는 자료가 돼요. 동시에 많은 장인이 모형을 만들고, 흙과 나무 등 재료를 나르고, 큰 시설을 마련해야 했다는 점도 보여 줘요. 거대한 무덤은 황제의 권력과 함께 많은 사람의 노동이 모인 결과였어요.

Q15 나라를 위한 공사가 왜 백성에게는 부담이 되었나요?

답 세금과 물자를 내는 데 더해, 농사와 생업을 떠나 오랫동안 일해야 하는 부담까지 겹쳤기 때문이에요.

진은 장성·도로·궁궐·무덤 같은 대규모 공사를 벌였어요. 나라가 사람들에게 공사나 운반 등의 일을 시키는 것을 **노역**이라고 해요. 군대에 들어가 복무하는 의무는 **군역**이라고 해요. 백성에게는 세금뿐 아니라 이런 노동과 군사 복무의 부담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농사일을 해야 할 사람이 먼 공사장으로 불러 가면, 남은 가족이 논밭을 돌보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공사에 필요한 식량과 재료도 누군가 마련해야 해요. 공사장 밖에 있는 사람도 부담을 나누어 지게 되는 거예요.

도로와 방어 시설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쓰였지만, 사업을 무리하게 늘리면 백성의 생활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황제의 권력을 드러내는 궁궐과 무덤 공사도 큰 부담이었어요. 통일 정책이 가져온 편리함이 이런 고통을 저절로 없애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Q16 진승·오광의 난은 왜 일어났나요?

답 무거운 부담과 가혹한 통치에 대한 불만이 쌓인 가운데, 시황제가 죽은 뒤의 혼란 속에서 저항이 일어났어요.

시황제는 기원전 210년에 죽었어요. 그 뒤 황제와 신하들이 권력을 둘러싸고 다투는 등 중앙의 정치도 흔들렸어요. 공사와 군사 활동에 동원되고 엄한 처벌을 겪던 백성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기원전 209년에는 군사 복무를 위해 이동하던 진승과 오광이 사람들을 이끌고 진에 맞서 일어났어요. 이를 **진승·오광의 난**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기존 지배에 맞서 집단으로 일어나는 것을 **봉기**라고 해요. 교과서에서는 진나라 말기의 대표적인 농민 봉기로 다루어요.

진승과 오광의 세력은 결국 진압되었지만, 진에 맞서는 움직임은 여러 지역으로 퍼졌어요. 이들이 직접 새 통일 왕조를 세운 것은 아니에요. 쌓여 있던 불만이 넓은 저항으로 번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중요해요.

Q17 그렇게 강했던 진나라는 왜 통일 뒤 약 15년 만에 무너졌나요?

답 백성의 부담과 저항, 시황제가 죽은 뒤 지배층의 권력 다툼이 겹쳐 통일 국가를 안정되게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는 많은 병사와 물자를 모으는 힘이 중요해요. 하지만 통일 뒤에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생활을 이어 가고 새 지배 질서에 따를 수 있도록 나라를 안정시켜야 해요. 전쟁에서 이긴 힘만으로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진에서는 대규모 공사와 군역, 무거운 부담과 엄한 통치 때문에 불만이 커졌어요. 시황제가 죽은 뒤에는 중앙의 권력 다툼도 겹쳤어요. 진승·오광의 난을 시작으로 반란이 이어졌고, 유방과 항우 같은 인물들도 진에 맞서 세력을 키웠어요. **유방**은 농민 집안 출신으로, 세력을 키워 뒤에 한나라를 세운 인물이에요. **항우**는 진에 정복된 옛 초나라의 장군 집안 출신으로, 진나라 군대를 크게 무찌른 인물이에요.

여러 지역의 저항과 중앙의 혼란이 겹친 끝에, 진의 마지막 왕은 수도 가까이까지 군대를 이끌고 온 유방에게 항복했어요. 이로써 진은 멸망했어요.

진의 통일 왕조는 보통 기원전 221년부터 기원전 206년까지로 보아 약 15년 동안 이어졌다고 해요. 진나라가 처음 생긴 때부터 15년만 존재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통일 이전의 진나라는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법을 받아들였으니까 멸망했다’거나 ‘진승·오광의 난 하나로 곧바로 멸망했다’고만 하면 과정이 빠져요. 법과 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했는지, 백성에게 어떤 부담이 생겼는지, 중앙은 왜 저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해요.

Q18 진나라가 빨리 망했는데도 통일 정책을 중요하게 배우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답 왕조는 짧게 이어졌어도, 황제 중심의 통치와 공통 기준으로 넓은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은 후대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왕조는 한 왕실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나 그 지배 체제를 말해요. 어느 왕조가 무너진다고 해서 그때 사용한 모든 제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황제라는 칭호와 황제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은 뒤의 왕조들로 이어졌어요. 진이 나라 전체에 실시한 군현제는 중앙이 지방을 다스리는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문자·화폐·도량형을 공통 기준으로 정비한 일도 여러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후대의 왕조들은 이런 제도를 그대로 복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이어받고 상황에 맞게 바꾸었어요.

진이 멸망한 뒤에는 유방과 항우가 주도권을 놓고 다투었어요. 그 경쟁에서 이긴 유방은 기원전 202년에 황제가 되어 한나라의 통일 지배를 확립했어요. 한나라가 진의 제도를 무엇까지 이어받고 무엇을 바꾸었는지는 다음 단원에서 살펴봐요.

확인 문제

확인 01

진나라가 강해진 까닭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귀족 집안의 지위를 보장하려고 전쟁에서 세운 공은 보상하지 않았어요.
- ② 농업과 군대를 정비하고 법과 상벌을 통해 사람과 물자를 모았어요.
- ③ 군주의 권한을 줄이고 각 지역의 제후에게 나라의 결정을 맡겼어요.
- ④ 처벌만 강화했을 뿐 농업이나 군대를 운영하는 제도는 바꾸지 않았어요.

확인 02

진나라의 중국 통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다른 여섯 강국을 정복해 기원전 221년에 통일 제국을 이루었어요.
- ② 상나라와 주나라가 생기기 전에 중국 역사상 처음 나라를 세웠어요.
- ③ 일곱 강국의 왕들이 번갈아 제국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통일했어요.
- ④ 오늘날 중국의 국경과 완전히 같은 경계를 정해 통일을 마쳤어요.

확인 03

진 시황제가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한 뜻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여러 강국의 왕들과 번갈아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뜻이었어요.
- ② 지방의 제후들에게 자신의 통치 권한을 나누어 주려는 뜻이었어요.
- ③ 주나라 왕의 명령을 받드는 제후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뜻이었어요.
- ④ 기존 왕들보다 높은 통일 제국의 최고 지배자임을 드러내려 했어요.

확인 04

진나라의 군현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군은 군대의 부대이고 현은 병사의 신분을 나눈 이름이었어요.
- ② 각 군과 현의 관리가 독립된 나라의 왕이 되어 지방을 다스렸어요.
- ③ 군과 현으로 나눈 지방을 중앙에서 임명한 관리가 다스렸어요.
- ④ 황제가 모든 마을로 직접 찾아가 세금과 재판을 혼자 처리했어요.

확인 05

주나라의 봉건제와 진나라의 군현제를 바르게 비교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제후의 지위는 대체로 세습되었고, 군현의 관리는 중앙이 임명했어요.
- ② 제후는 중앙이 수시로 교체했고, 군현의 관리는 지배권을 세습했어요.
- ③ 두 제도 모두 지방 지배자가 왕이나 황제와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 ④ 두 제도 모두 지방 지배자가 자기 지역을 독립된 왕국으로 삼았어요.

확인 06

군현제에서 지방 관리가 중앙의 명령을 따르도록 통제하기 쉬웠던 까닭을, 그 관리의 자리를 누가 맡기고 바꿀 수 있었는지와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쓰세요.

답

확인 07

진나라의 문자 통일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지역마다 다른 발음이 사라져 모든 백성이 같은 말투로 말했어요.
- ② 글자 모양과 표기 기준을 정리해 문서와 명령을 전하기 쉽게 했어요.
- ③ 온 나라 백성이 같은 생각만 말하도록 모든 종류의 책을 없앴어요.
- ④ 지방마다 별개의 글자를 쓰게 하여 다른 지역과의 소통을 막았어요.

확인 08

화폐 통일로 기대할 수 있었던 변화는 무엇인가요?

- ① 지역마다 달랐던 모든 물건의 가격이 반드시 같은 값으로 정해져요.
- ② 여러 지역에서 사용하는 글자 모양과 발음이 저절로 같아지게 돼요.
- ③ 물건을 옮길 길을 마련하지 않아도 지역 사이의 운반이 쉬워져요.
- ④ 지역마다 다른 돈을 확인하고 바꾸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줘요.

확인 09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도량형은 _____·부피·무게를 재는 기준이에요. 곡식을 담은 그릇의 크기로 양을 비교하는 것은 그중 _____와 관련돼요.

확인 10

진나라의 도로 정비와 수레바퀴 간격 통일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지방의 길을 끊어 관리가 중앙의 명령을 받지 못하게 하려 했어요.
- ② 모든 지역의 곡식과 물건 가격을 같은 값으로 고정하려 했어요.
- ③ 교통을 편리하게 하고 문서·물자·군대의 이동을 돕고자 했어요.
- ④ 지방 관리가 담당 지역의 지배권을 자손에게 물려주게 했어요.

확인 11

진나라가 통일 뒤 장성을 정비한 까닭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북쪽 유목 세력과의 충돌에 대비해 국경의 방어를 강화하려 했어요.
- ② 남아 있던 여섯 강국이 주나라 왕을 다시 세우는 일을 막으려 했어요.
- ③ 정복한 나라들 사이를 성벽으로 가르고 각 나라의 왕을 그대로 두려 했어요.
- ④ 모든 병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성벽만으로 국경을 지키려 했어요.

확인 12

만리장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진 시황제가 이전 성벽을 모두 없애고 오늘날의 장성을 새로 완성했어요.
- ② 진 시황제 때 만들어진 장성은 오직 벽돌과 돌만 사용하여 쌓았어요.
- ③ 오늘날 유명한 명나라 장성도 진 시황제가 쌓은 모습 그대로 남았어요.
- ④ 진은 이전 성벽 일부를 연결했고, 뒤의 왕조들도 장성을 쌓고 고쳤어요.

확인 13

분서갱유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다른 나라와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 돈과 곡식의 기준을 맞추는 일이에요.
- ② 황제의 통치를 비판하는 생각과 사람을 억누른 사상 통제의 사례예요.
- ③ 여러 학파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황제가 후원한 일이에요.
- ④ 지방 관리가 글자를 읽기 쉽게 글자체만 공통 기준으로 정리한 일이에요.

확인 14

병마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진짜 군인과 말을 살아 있는 채로 묻어 놓은 것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 ② 정복한 여섯 나라의 왕과 신하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모형들이에요.
- ③ 흙으로 빚어 구운 병사와 말의 모형으로, 시항릉 주변에 배치되었어요.
- ④ 황제가 살아 있을 때 궁궐 앞을 꾸미려고 세운 돌 조각들을 가리켜요.

확인 15

농사를 짓던 사람이 오랫동안 먼 공사장에 동원되면 그 집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까닭을 한 문장으로 쓰세요.

답

확인 16

진승·오광의 난과 그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두 사람이 진나라 전체를 무너뜨린 뒤 직접 한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었어요.
- ② 진의 부담과 통치에 대한 불만 속에서 일어나 각지의 저항에 영향을 주었어요.
- ③ 문자와 화폐를 지역마다 다르게 쓰도록 허용한 정책을 지지한 운동이었어요.
- ④ 진 시황제가 살아 있을 때 주나라 왕의 지배를 다시 강화하려고 일어났어요.

확인 17

진나라의 멸망 과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무거운 부담에 따른 저항과 시황제가 죽은 뒤 지배층의 혼란이 겹쳤어요.
- ② 법가 사상을 받아들인 것만이 원인이며 백성의 부담이나 권력 다툼은 없었어요.
- ③ 진승·오광의 난이 일어나자 그 두 사람이 곧바로 제국 전체를 통일했어요.
- ④ 진나라는 다른 여섯 강국을 정복하는 데 실패해 중국 통일 전에 무너졌어요.

확인 18

진나라가 짧게 이어졌어도 중국 역사에 영향을 남겼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을, 통치 제도나 통일 정책 한 가지와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쓰세요.

답

정답·해설

확인 01 정답 ②

진은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농업과 군대를 정비하고, 법과 상벌을 통해 사람과 물자를 모으는 힘을 키웠어요.

- ① 전쟁에서 세운 공에 보상을 주었고, 귀족 집안의 특권을 줄이는 개혁도 했어요.
- ③ 각 지역의 제후에게 권한을 넘기기보다 군주와 중앙의 힘을 키웠어요.
- ④ 처벌만 강화한 것이 아니에요. 곡식을 확보하고 병사를 동원하는 제도를 함께 정비했어요.

다시 읽기: Q01

확인 02 정답 ①

진은 다른 여섯 강국을 정복하고 기원전 221년에 통일을 이루었어요. 여러 지역이 하나의 최고 권력 아래 묶였어요.

- ② 진 이전에도 상나라와 주나라가 있었어요. 진은 중국 최초의 나라가 아니라 최초의 통일 제국으로 설명돼요.
- ③ 왕들이 번갈아 다스리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에요. 진이 다른 강국을 정복했어요.
- ④ 당시 진의 영토와 오늘날 중국의 국경은 똑같지 않아요.

다시 읽기: Q02

확인 03 정답 ④

황제라는 칭호는 여러 나라를 통일한 최고 지배자의 지위를 드러내요. 시황제는 첫 번째 황제라는 뜻이에요.

- ① 정복한 나라의 왕들과 돌아가며 다스리려 한 것이 아니에요.
- ② 지방 제후에게 권한을 나누기보다 황제 중심으로 권력을 모으려 했어요.
- ③ 주나라 왕 아래의 제후로 남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통일 제국의 최고 권력을 나타냈어요.

다시 읽기: Q03

확인 04 **정답 ③**

군과 현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나눈 행정 구역이에요. 그 지역은 중앙에서 임명한 관리가 맡았어요.

- ① 여기서 군은 군대라는 뜻이 아니에요. 현도 병사의 신분 이름이 아니에요.
- ② 군과 현을 맡은 사람은 독립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중앙의 관리였어요.
- ④ 황제가 혼자 모든 지방의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관리 조직을 통해 다스렸어요.

다시 읽기: Q04

확인 05 **정답 ①**

주나라 제후의 지위와 지배권은 대체로 자손에게 이어졌어요. 진의 군현을 맡은 관리는 중앙이 임명하고 교체할 수 있었어요.

- ② 두 제도의 지위 계승 방식을 거꾸로 설명했어요.
- ③ 주나라의 제후도 왕을 받들 의무가 있었고, 진의 지방 관리도 중앙의 명령을 따라야 했어요.
- ④ 군현의 관리는 자기 지역을 독립 왕국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어요.

다시 읽기: Q05

확인 06 **예시 답**

중앙이 지방 관리의 자리를 맡기고 필요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가 한 집안의 세습 권리가 아니므로, 중앙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관리에게 책임을 묻고 교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의 정책을 지방에 실행하기 쉬워졌어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중앙 또는 황제가 관리를 임명하고 교체할 수 있다는 뜻이 들어가면 돼요. ‘중앙 집권이어서’라고만 쓰면 관리가 중앙의 통제를 받는 까닭을 설명하지 못해요.

다시 읽기: Q05·Q06

확인 07 정답 ②

문자 통일은 지역마다 달랐던 글자 모양과 표기 기준을 정비한 일이에요. 문서로 법과 명령을 전달하고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 ① 문자 사용의 기준을 맞춘 것이지 모든 사람의 발음과 말투를 같게 만든 것은 아니에요.
- ③ 비판적인 책과 생각을 억누르는 것은 사상 통제와 관련돼요. 분서 때에도 모든 종류의 책을 없앤 것은 아니에요.
- ④ 지역마다 다르게 쓰도록 한 것이 아니라 공통 기준을 마련했어요.

다시 읽기: Q07·Q13**확인 08** 정답 ④

돈의 기준이 같아지면 다른 지역에서 거래할 때 돈의 종류와 가치를 따로 확인하고 바꾸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 ① 화폐의 기준과 물건의 가격은 달라요. 같은 돈을 사용해도 지역에 따라 물건값은 다를 수 있어요.
- ② 돈의 기준을 맞추는 일은 글자나 발음을 같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 ③ 돈을 통일해도 물건을 운반할 도로와 교통수단은 여전히 필요해요.

다시 읽기: Q08**확인 09** 정답: 길이 / 부피

도량형은 길이·부피·무게를 재는 기준이에요. 그릇에 들어가는 곡식의 양은 부피와 관련되고, 물건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무게와 관련돼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첫 빈칸에는 '길이', 둘째 빈칸에는 '부피'를 쓰면 돼요. 둘째는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양이라는 뜻의 '용량'이라고 써도 돼요.

다시 읽기: Q09와 곡식 삽화

확인 10 **정답 ③**

도로 정비와 수레바퀴 간격의 통일은 지역 사이의 이동을 돕는 정책이었어요. 거래뿐 아니라 문서 전달, 물자 운반, 군대 이동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 ① 중앙과 지방의 연결을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결을 강화하려 했어요.
- ② 교통 기준을 맞추는 정책이지 모든 물건값을 같은 값으로 정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 ④ 도로 정비나 수레바퀴 간격의 통일은 지방 관리의 지위 세습과 관계없어요.

다시 읽기: Q10

확인 11 **정답 ①**

중국을 통일한 뒤에도 북쪽의 흉노 같은 유목 세력이 남아 있었어요. 진은 군사 활동과 함께 장성을 정비해 국경의 방어를 강화했어요.

- ② 다른 여섯 강국은 이미 진에 정복되었어요. 장성은 북방 세력과의 충돌에 대비한 시설이었어요.
- ③ 정복한 나라의 왕을 그대로 두고 나라 사이를 가르려는 정책이 아니에요. 진은 군현제로 지방을 다스렸어요.
- ④ 성벽을 지킬 병사와 식량은 계속 필요했어요. 성벽만으로 모든 충돌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읽기: Q11

확인 12 **정답 ④**

진 이전에도 성벽이 있었고, 진은 일부를 연결하고 보강했어요. 그 뒤에도 여러 왕조가 장성을 쌓고 고쳤어요.

- ① 시황제가 이전 성벽을 모두 없앤 것도, 오늘날의 장성 전체를 한 번에 완성한 것도 아니에요.
- ② 흙을 층층이 다지는 방식도 쓰였어요. 오직 벽돌과 돌만 사용했다는 설명은 맞지 않아요.
- ③ 오늘날 유명한 벽돌·돌 성벽 구간은 주로 뒤의 명나라 때 모습이에요.

다시 읽기: Q12와 성벽 삽화

확인 13 **정답 ②**

분서갱유는 통치를 비판하는 생각과 그 표현을 억누른 사상 통제의 사례로 다루어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는 기록을 검토하며 논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 ① 돈과 측정 기준을 맞춘 것은 화폐·도량형 통일이에요.
- ③ 여러 사상을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후원한 일이 아니라 비판적인 생각을 억누른 일이에요.
- ④ 글자 모양과 표기 기준을 정비하는 문자 통일과는 구별해야 해요.

다시 읽기: Q13

확인 14 **정답 ③**

병마용은 흙으로 빚어 구운 병사와 말의 모형이에요. 시황릉 주변에 배치되어 시황제가 죽은 뒤에도 권력과 군대를 누리려 했던 생각을 보여 줘요.

- ① 병마용은 실제 군인과 말을 묻은 것이 아니라 모형이에요.
- ② 정복당한 왕과 신하를 기념한 것이 아니라, 죽은 시황제를 지키는 병사와 말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 ④ 돌로 만든 궁궐 장식이 아니에요. 흙으로 빚어 구워 시황릉 주변에 배치한 모형이에요.

다시 읽기: Q14

확인 15 **예시 답**

농사일을 할 사람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면 남은 가족이 논밭을 돌보고 먹을 것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노역의 부담은 공사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집에서 하던 일을 못하게 되고, 남은 가족이 더 많은 일을 떠맡게 되는 부담도 생겨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농사를 짓던 사람의 부재가 논밭 관리의 어려움, 일손 부족 또는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뜻이 들어가면 돼요. ‘일이 힘들기 때문’만 쓰면 그 집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까닭이 드러나지 않아요.

다시 읽기: Q15

확인 16 **정답 ②**

진승·오광의 난은 무거운 부담과 가혹한 통치에 대한 불만 속에서 일어났어요. 이들의 세력은 진압되었지만 각지의 저항이 퍼지는 데 영향을 주었어요.

- ① 진승과 오광이 한나라를 세운 것은 아니에요. 뒤에 유방이 한나라의 통일 지배를 확립했어요.
- ③ 문자와 화폐의 지역별 사용을 지지한 운동이 아니라 진의 지배에 맞선 봉기였어요.
- ④ 시황제가 죽은 다음 해인 기원전 209년에 일어났어요. 주나라 왕의 지배를 강화하려는 운동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다시 읽기: Q16·Q18
확인 17 **정답 ①**

진의 멸망에는 백성의 부담과 저항, 시황제가 죽은 뒤의 권력 다툼과 통치 혼란이 함께 작용했어요.

- ② 법가 수용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제도를 실제로 운영한 방식과 백성의 부담, 중앙의 혼란을 함께 보아야 해요.
- ③ 진승·오광의 세력은 진압되었어요. 그 뒤에도 여러 세력의 저항이 이어지는 과정을 거쳤어요.
- ④ 진은 기원전 221년에 통일에 성공했어요. 통일 국가를 안정되게 유지하지 못한 것이에요.

다시 읽기: Q15~Q17
확인 18 **예시 답**

군현제를 나라 전체에 실시하여 중앙이 지방을 다스리는 방식에 후대까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왕조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와 그 제도가 얼마나 오래 영향을 주었는지는 같지 않아요. 진 이후의 왕조들도 공통 기준으로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제도를 이어받거나 바꾸어 사용했어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군현제·황제 중심 통치·문자·화폐·도량형 통일 가운데 하나를 들고, 후대 통치에 영향을 주었거나 여러 지역을 공통 기준으로 다스리는 바탕이 되었다는 뜻을 연결하면 돼요. ‘군현제’, ‘문자 통일’처럼 이름만 쓰면 그 정책이 남긴 영향을 설명하지 못해요.

다시 읽기: Q18